

지상 법석

“가르침 실천 수행하는 불자만



성수스님 <법수선원 조실>

「니무 사만다 뭇다남 움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그 입만 잘 관리해서 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만 하면 아들딸, 온통네가 다 편안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웃 좋고, 나라 좋고 그것이 바로 극락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락세계가 멀리 있는게 아니고 내입하나 관리 잘해서 내 마음 편하고 식구모두 편하고 이웃, 나라가 다 편하니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수경에서 오방내외안위제신전 다음에 개경계(開經界)를 말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 백천만겁전주우(百千萬劫難遭遇) 백천만겁 전지도 못 만나볼까 어려워라.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 내가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지니오니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真實意)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아지게 하소서. 천하의 만물이 선(善) 아닌게 없고, 세상만사가 다 아닌게 없습니다. 그 법(法)인 것입니다. 그 법을 알고 살다 보면 인생이 즐거움을 느껴, 나쁜것도 있고, 욕심도 있는 산불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혜안

내 마음의 구경물이 많아지면 저절로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그러므로해서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생기니 그 부처님이 왕궁과 처자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갈 때 내 마음의 법을 스스로 갖고 절을 찾을 때만이 우리 마음 속에 특실거리는 8만4천 마구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투철한 각오 없으면 번뇌마구리에 휩쓸려 방황하고 고통스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구복을 위해 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으로 인해 복을 구할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실천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5백생동안 자비보시행을 하셨습니다. 자비보시행은 물질적인 보시행 보다 정신적인 보시행에 더욱 중점을 두십니다. 나는 '복짓는 것은 삼세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질 복을 짓는다고 한평생 허덕이고, 물질 복을 지어서는 만석꾼이 되어 열쇠로 물질 보관한다고 한평생 또 허덕이고, 복 짓는 타령하느라 정신없이 살아 한생을 무의미하게 살게됩니다. 그러나 삼계를 헛 산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복을 지을게 아니라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11)

其六 切莫妄自尊大 輕慢他人 (기욕은 절막망자존대하고 경만타인이다) 修仁得仁 謙讓爲本 (수인득인은 겸양이 위본이요) 親友和友 敬信爲宗 (친우화우는 경신이 위종이라) 四相山 漸高 三途海益深 (사상산이 점고면 삼도해익심하니) 外現威儀 如尊貴 內無所得 似朽用 (외현위위는 여존귀나 내무소득은 사후주라) 官益大者 心益小 道益高者 意益卑 (관익대자는 심익소하고 도익고자는 의익비니라) 人我山崩處 無爲道自成 (인어산붕처에 무위도자성하니) 凡有下心者 萬福自歸依 (범유하심자는 만복자귀의니라) 여섯째, 망녕되이 자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진(참다운) 길을 닦아 이루는데는 결손과 양보(하심)가 근본이 되고 벗(도반)과 사귀는데는 공경과 믿음(의)이 으뜸이다. 네가지 상(아·인·중생·수자상)이 높아지면 삼악도 고해는 더욱 깊어진다. 곱보기 형상·거동은 존귀해 보이나 안으로 관하여 터득하는 바 없다면(이 몸은) 마치 낡은 배와 다를 바 없느니라. 벼슬이 높으면 높을 수록 마음은 더욱 왜소해지고 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뜻은 더욱 낮아지느니라.

색을 엄격히 금하시며 '여색을 보거든 마치 호랑이·뱀을 본듯이 하고 금·육이 수중에 들어 오거든 묵석과 한가지로 보라' 하셨습니다. 離塵習室 如對大賓 隱現明時 內外莫異 (수거암실이나 여대대빈하고 은현동시하며 내외막이이다) 心淨則善淨 必獲 離色則諸天 不容 (심정즉선신이 필요하고 련색즉제천이 불용하니) 神必變則 難難越而無難 (신필변즉 수난처이무난이요) 天不容則 乃安方而不安 (천불용즉 내안방이불안이니라) 비록 어두운 밤에 홀로 있어도 큰 손발 대한 듯이 하고(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있어도 귀한 손님 마주 대한듯 위외지키고) 보일 때나 안보일 때나 한가지로 갈아서 마음과 행실이 다르지 않을지이다. 마음이 청정한 즉 신장이 반드시 지켜주고 색을 그리워 한 즉 하늘이 용납치 않으리니(※선신과 제천은 재발보살 또는 자성불의 의미) 신이 반드시 지켜주는 즉 비록 어려운 처지라도 어려움이 없고(마음이 여여함을 의미함) 하늘이 용납치 않은 즉 이에 편안한 곳에 서도(마음은) 편치 못하리라. 鐘曰, 利劍能王弓 願續 淨淨淨佛接蓮臺 (승함, 이욕염왕인욕세요 정행타불접연대니라) 鐵拘入鐵苦千種 船上生蓮樂萬般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색·재화·세속인연 멀리해야 출가사문

내다, 너다 물로 보는 상이 무너진 곳에 한이 없는 도는 절로 이뤄지나니 무릇 하심하는 이에게는 만복이 절로 돌아와 의지하느니라.

鐘曰, 機機塵中藏般若 我人山上長無明 (승함, 교만진중장보야요 아인산상장무명이요) 輕他不學難離老 病臥辛吟限不窮 (경타불학용종로하면 병와신음한불공이니라)

계승으로 말하노라. 교만한 마음(교만이라는 티끌)속에 반야지혜 묻혀 버리고 아상·인상 높은 피엔 무명만 자라네, 남을 업수히 여겨 배우지 않고 뒤뚱뒤뚱이 몸 높으면 병들어 자리보고 신음·한탄 끝이 없네.

其七 見財色 心須正念對之 (기질은 견재색이든 심수정념대지이다) 善身之機 無過女色 愛道之本 莫及財貨 (선신지기는 무과여색이요 상도지본은 막급재화니라)

是故 佛垂戒律 嚴禁緝色 (시고로 불수계율하사 엄금재색하사대) 眼觀女色 如履虎尾 (안도여색이여든 견조호사하고) 身處金玉 等視木石 (신입금옥이여든 등시목석하리) 일곱째, 재물과 여색을 보거든 모름지기(가르침 따라)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몸을 해치는 기쁨로 색정보다 더한 게 없고 도를 상하게 하는 근본으로 재화에 미칠 게 없다. 이러므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세우사 재물과

(재구입욕고천중이요 선상생연락만변이니라)

계승으로 말하노라. 이욕에 빠지면 열라장이 지옥에 가두고 마음 청정하면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영접하리 쇠고랑 차고 지옥에 들면 괴로움이 천가지요 배(바라밀)에 올라 연화대로 나아가면 즐거움이 만반이로다.

其八 莫交世俗 令他嗔嫉 (기팔은 막교세속하야 련타증질이다) 心中愛白紗巾 不離世出三出家 (심중애왕사문이요 불린세속탈출가니라) 既能愛愛人 復何白衣 結縵遊 (기능애애인세니 복하백의로 결만유리요) 愛戀世俗 爲養養 養由來非道心 (애련세속은 위도철이니 도철은 유래로 비도심이니라) 人情濃厚 道心疎 冷却人情水不願 (인정농후면 도심소내 냉각인정영불고니라)

여덟째 세속과 사귀어 다른 이로 하여금 증오·질투케 하지 말라. 마음 속 집착애욕(갈애) 여의니 사문이라 하고 세속 인연 그리워 않으니 출가라 한다. 이미 갈애를 능히 베고 인간 세상 뿌리쳤으니 다시 속인과 무리지어 교류하겠는가. 세속을 심히 그리워 함은 도철한 도철은 본래로 도 닦는 마음이 아니다. 사람 사는 정이 짙으면 도심은 성글어지니 냉정하게 인정 물러쳐 영영 돌아보지 말라. 龍眼

오늘 산승은 여러 대중 앞에서 사바세계의 때를 벗어 던지고 씻어 버리는 애기부터 하셨습니다.

이 산승의 말을 듣고 신 잘 벗는 것부터 배웠으면 합니다. 자기가 신는 신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사람은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도 진리, 법이니, 설법이니 하는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신 하나만 제대로 잘 벗고, 모자 하나만 반듯하게 잘 쓰고 입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또 손도 소중함 손, 귀중한 손, 위대한 손인줄 알고 함부로 써서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엔 발걸음 한자쪽 잘못 내딛으면 3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걸음 한자쪽만이라도 백번을 생각하고 또 해서 한자쪽 옮겨 놓을 수 있는 장부가 돼야 합니다. 쫓아기면 다 걷는 줄 알지만 생각하고 걷는 것 하고, 생각않고 걷는 것하고 태도와 모습이 천지차이입니다.

자신의 신체 하나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절만 구복구복하는 것은 겁대기 불자입니다. 겁대기 불자만으로는 앞으로의 한국불교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5백생동안 자기 눈, 입, 손, 발 관리를 잘 하시기에 3천년 존경 받는 산불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을 살

아가는 승가와 우바세, 우바이도 이것들을 잘 관리해 산불자가 돼야 함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굳은 심지와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굳은 각오없는 허사로운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을 제대로 벗는 사람

우리나라 불자치고 정구입(淨口業) 진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실천수행하는 이들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은 '입에 업되는 말을 맑게하고 참말만 하였습니다' 하고 부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발원해 놓고 실행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벌을 설할 알아야 하고 불제자로서 참회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허물은 적정않고 남의 걱정과 허물을 들춰내기를 일삼는 불자는 부처님 앞에 합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허물만 꾸짖지 말고 힘써 내 몸을 되살려 보아야 합니다. 남을 홍보기 이전에 나는 어떤가 하고 먼저 반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잣대에서 남을 판단하고, 강요하고 하는 것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입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고 항상 되풀이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일 이렇게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툼은 길이 쉬어질 것입니다.

장부는 일일이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장부가 전 인류에 살아되고 뼈가 될 수 있는 장부의 말 한마디가 수백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구입진언을 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말만 하였습니다' 하고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가슴에 쓴 없고 자기하루를 생각해보면 거짓말, 나쁜말도 했고 비겁하고 용한 말도 해 하루가, 전 생애가 엉망이 돼 버렸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업을 지어놓고 부처님께 복달라, 명(命) 달라하는 것은 진정한 참불자의 모습이 아닐 터입니다.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고 구복을 일삼는 것은 헛 겁대기에 불과한 불자입니다.

정구입진언 즉 진실한 말, 고운 말, 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천타불타불, 천등만등 달아 발원하느니 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발원은 그에 대한 엄판을 계속 쌓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 오방내외안위제신전을 독송합니다.

정구입진언 즉 진실한 말, 고운 말, 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천타불타불, 천등만등 달아 발원하느니 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발원은 그에 대한 엄판을 계속 쌓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 오방내외안위제신전을 독송합니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갑술년 한해 동안 성원하여 주신 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 일동-

Table with 5 columns: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출발일. Lists various India travel packages with details on destinations, costs, and departure dates.

INDIA Travelite (India) 인도관광성 인도전문여행사. Includes promotional text about the agency's experience and services, and a list of departure dates and prices for different packages.

Table with 5 columns: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출발일. Continues the list of India travel packages with specific itineraries and prices.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